

남원고·이리여고, 교육부 ‘자공고 2.0’ 공모 선정

남원고, 농생명 바이오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이리여고, 식품·보건 등 융합 교육과정 모델 확산

남원고와 이리여고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4차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이미 선정된 양현고, 전주고, 전주술내고, 전주여자고, 진안제일고 군산동고, 김제여고, 순창제일고 등 총 10개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로 운영된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남원고는 남원시바

이오산업연구원, (주)한미양행, 전북대학교 등과 중점 협약을 체결, 농생명 바이오산업 관련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생태·역사 융합교육 뿐만 아니라 남원교육발전연구와 연계해 드론, AI 관련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신산업분야특화 교육과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리여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원광대학교와 중점 협약을 맺고, 식품·보건·과학을 융합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인

근 학교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 학생을 함께 키우는 학교 혁신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들 학교에는 지정 이후 5년 동안 △매년 2억 규모의 재정 지원 △자사고와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교장공모제 실시 △교사 정원 100%까지의 초빙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된 10개교가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우수 모델이 다른 일반고교까지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7일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지역 4개 대학(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연합으로 ‘찾아가는 졸업생 취업상담’이 운영됐다. <사진=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제공>

졸업생 취업상담 서비스, 전북 4개 대학 연합

전주대·우석대·원광대·군산대, 찾아가는 상담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7일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개 대학(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연합으로 ‘찾아가는 졸업생 취업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타 지역에 거주해 대학 내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진로·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도내 4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아 확 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졸업생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도내 대학 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대학 졸업생 및 지역청년 30여 명이 참여해 △개인별 1:1 맞춤형 취업 코칭 △각 대학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안내 및 매칭 서

비스를 제공받았다. 특히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에는 현직자 멘토링, 기업탐방, 일경험, AI 기반 자기소개서 및 모의면접 교육, 채용설명회 및 박람회, 취업캠프, 아이디어 공모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또한 졸업 후 구직활동 중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한 후 대학별 맞춤형 취업지원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숙경 센터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층 고용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내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의 진로·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하반기

감사담당공무원 맞춤형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관 대강당에서 하반기 감사담당공무원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실무 능력을 키워 공정하고 청렴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수 운영전 과목 선호도 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수는 △감사담당공무원 윤리 강령과 감사업무의 이해 △감사보고서 작성 기법 및 사례 △책임서 및 결산서 작성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이훈열 감사관은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방감사와 현장 중심의 감사임무를 수행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페배터리 금속 회수기술 산업화 인정

전북대 윤영상 교수,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자 선정



전북대학교 윤영상 교수(공대 화학공학부)가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지역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윤 교수는 환경소재 및 공정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화학공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에 약 3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국내 특허 38건을 보유, 이 가운

데 11건을 기업에 이전해 산학협력을 실현했다. 최근에는 페배터리에서 전락금속을 회수하는 친환경 도시광산 기술을 개발, 3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확보하며 산업적 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스탠퍼드대와 엘스비어가 발표한 ‘세계 상위 2% 과학자’에 5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2002년 전북대 교수로 부임한 그는 화학공학부장, 공대 부학장, 기획처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며 대학 발전에 헌신했다. 제자 가운데 9명이 교수로, 4명이 창업가로 성장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앞장섰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대 1호 조기 승진 교수’, JBNU Star Fellow, 산학협력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전북대를 대표하는 교수로 자리매김했다. /장은성 기자

“새로운 도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북교육청,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황조근정훈장 8명 등 총 88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8월 말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년퇴임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88명이며, 이들은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헌신적인 공직 생활로 귀감이 되는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받아 정부포상을 받았다. 수상자로는 △황조근정훈장 학생해양수련원장 장기선 외 13명 △홍조근정훈장 전주새솔유치원장 정광자 외 30명 △녹조근정훈장 주반월초등학교장 유병중 외 24명 △옥조근정훈장 김제일유치원장 최용숙 외 7명 △근정포장 군산도담유치원감 박혜숙 외 4명 △국무총리표창 전주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계형 △교육부장관표창 이리고현초등학교 교사 문기정 외 3명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에 한평생 헌신한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새로운 도전을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8월 말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이 열린 가운데, 장기선 학생해양수련원장이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고 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변함없

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 브릿지 캠프 성과 공유

학생 등 70여명 참여… 영어 집중수업·글로벌 진로체험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2025 글로벌 브릿지 캠프 성과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진행된 캠프를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워싱턴주 교육청과의 교육교류 협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글로벌 브릿지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2기 캠프는 타코마 링컨고등학교(Lincoln High School)를 중심으로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영어 집중수업과 공동 프로젝트, 기관방문 및 문화체험 등으로 채워졌다.



성과발표회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나의 성장 이야기’ 포스터, 우정 메시지 현수막, 활동 사진·영상 자료 공유로 시작했다. 이어 참가 학생들의 성장 발표 △데일리 저널 공유 △수업 및 과제 결과 발표 △캠프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스마트폰 대신 가족의 얼굴 마주봐요”

전북교육청, 디지털 디톡스 캠프 29~30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9~30일 이틀간 김제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서 ‘2025년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디톡스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일시 중단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OFF, 가족 ON!’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초등학생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10가족 모집에 178가족이 지원했을 만큼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1박2일 간의 캠프는 스마트폰 전원

을 끄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자연과 연결, 가족과 연결이라는 방향 아래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 체육 △별자리 관측 과학교실 △‘우리 가족 디지털 사용 규칙’ 워크숍 △목공·유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다. 이를 통해 자연 속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경험하며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마지막 날 ‘가족 약속 다짐식’에서는 전날 가족이 함께 정한 규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이어갈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총, “학원연합회장 교사 전문성 폄해 발언 규탄”

학원연합회장 “학교 교사들 실력 학원 강사에 비해 떨어져” 전북교총, 성명서 통해 “아이들의 배움·미래 부정하는 것”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27일 성명을 통해 학원연합회장의 ‘학교 교사들의 실력이 학원 강사에 비해 떨어진 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교육 현장을 모독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를 넘어, 교단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전국 교사들

의 자존과 교직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교사의 헌신과 노고를 폄하하는 발언은 곧 아이들의 배움과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북교총은 “공교육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국가 교육 시스템으로, 교사들은 단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생활지도, 상담, 안전, 인성교육까지 포괄하는 전문가”라며 “사교육인 학원과 공교육인 학교의 역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교육 본질에 대한

무지이자, 학부모와 학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준영 회장은 “교사를 모욕하는 것은 곧 교육을 모욕하는 것이며, 교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사회는 결코 미래세대를 지킬 수 없다”며 “전북교총은 교사의 명예와 교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